

“‘車 100만대’ 예산 적극 반영

KTX 호남선 2단계 지역 의견 고려

최경환 부총리, 김동철·장병완 의원 면담서 밝혀

광주의 최대 현안 사업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클러스터 구축 사업’의 내년도 정부 예산 반영과 ‘KTX 호남선 2단계 사업(송정~목포)’의 무안공항 경우 및 신선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산자위위원장 김동철 의원은 22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산업부의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클러스터 구축 사업’ 예산 5억원에 대해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2016년 융합기반구축사업(일반회계·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으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클러스터구축사업’ 총사업비 8347억(국비 4854억) 중 사업 설계·용역비 등 5억원을 확정하고, 기획재정부로 넘겨 바 있다. 오는 2021년 완공 목표이며, 자동차 산업 전용 국가산단 및 친환경자동차 부품 산업 클러스터 조성, 친환경자동차 유망기술 개발 등이 추진된다.

기재부에서도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

지’사업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업비 반영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윤장현 광주시장과 지역 국회의원간 협업 등으로 해당 사업이 정부의 2014년 하반기 예타 조사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이후 올 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최 부총리는 이어 KTX 호남선 2단계 사업과 관련, 무안공항 경우와 신선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국토부와 전남도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지역 의견을 심본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김 위원장이 전했다. 전남도와 전남도의회, 지역상공인들은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호남선 2단계 사업의 조속한 착공과 무안공항 경우를 강력하게 건의해 왔다.

김동철 의원과 장병완 의원은 이날 최경환 부총리를 만나 광주와 전남의 내년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협조를 당부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전남 찾은 크루즈관광객 5만3천명→‘0’

〈2014년〉

〈2015년〉

여수·광양항 인지도 낮고 대형쇼핑몰 등 인프라 부족

올해 현재까지 전남지역을 방문한 국제 크루즈관광객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도내 정박 예정이 예정된 크루즈도 없어 전남도에 비상이 걸렸다.

전남도는 지난해 100여원을 들여 15만t급 선박의 접안이 가능하도록 여수항을 준설하고 6억6000만원을 투입해 다음달 여수항에 크루즈 관광객 종합안내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나 이를 이용할 크루즈 관광객은 유치하지 못한 것이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 현재까지 여수항, 광양항, 목포삼학도항, 목포신항 등 전남지역 4개 항을 이용한 국제 크루즈관광객은 한 명도 없다.

올 하반기 전남지역 4개 항을 경유할 계획을 가진 크루즈 선박도 없는 것으로 파악돼 자칫 올해 국제 크루즈관광객의 전남방문 실적이 전무할 것이라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2월 28개 기관이 참여한 ‘전남도 크루즈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크루즈관광객 유치에 전력을 기울였으나 ▲중국관광객이 선호하는 대형 쇼핑센터 부재 ▲국제이벤트 미개최 ▲중국 내 홍보 마흡 등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까지 겹쳤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2년 12회(1만6000명), 2013년 18회(4만7000명), 2014년 14회(5만3000명) 등 전남 4개 항을 경유한 크루즈 선박과 관광객이 증가 추세에 있었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2013년 순천정원박람회 등 국제이벤트가 이어졌고, 2014년에는 중일관계 경색에 따라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을 외면하면서 반사이익을 누렸다는 것이 전남도의 분석이

다. 전남도 관계자는 “여수항, 광양항은 인지도가 떨어진다 항구 주변에 대형 쇼핑몰 등 관광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크루즈 관광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메르스 사태로 인해 제주, 부산, 인천 등 국내 다른 지역도 크루즈관광객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올 하반기 중국 내 마케팅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크루즈 협의회 구성 및 공동마케팅 실시, 국제 크루즈 선박 유치 인센티브 제공 등에 나설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지난 2005년 광주에서 무안군으로 자리를 옮긴 전남도청. 전남도청 이전으로 새로운 신도시인 남악신도시가 개발됐고, 이로 인해 목포 원도심 공동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현용 법무장관 내정 환영”

호남미래포럼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래포럼(이하 호남미래포럼, 공동대표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김현용 법무부 장관 내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호남미래포럼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근혜정부 들어 호남 출신으로는 5번째 장관이자, 사정기관 정부직으로는 처음으로 호남 출신인 김현용 서울고검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했다”며 “그동안 사회 각 분야에서 인사차별로 소외에 빠져있는 호남인들에게 만사지탄의 감은 있지만 가뭄의 단비처럼 반가운 일이다”라고 환영했다. 호남미래포럼은 “앞으로 박근혜정부는 지역색을 떠나 인물중심의 균형적인 인재등용을 적극 강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시, 서구청 부당행정 64건 적발

26명 훈계 조치하고

예산 4700만원 회수

광주시 서구청의 쪼개기 발주, 부당한 수의계약 등 부처정행 행정행위가 광주시 감사에 적발됐다.

광주시는 22일 “서구청에 대한 종합감사(2012년 8~2014년 6월) 결과 64건을 적발, 시정하거나 개선할 것으로 보고하고 26명에게 훈계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부당하게 지급한 예산 등 4700만원은 회수나 감액하도록 했다.

유사·중복사업 분리발주나 부처정행 공유재산 매각 업무추진 등 4건은 기관경고했다. 특히 서구청은 지난 2012년 감사 때 지적된 35건보다 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부당한 행정행위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백마산 구유지 매각 사건과 관련해 종합감사에서 관련자 5명을 훈계한 데 이어 보주기 감사라는 지적이 일자, 구유지 매각 사건 특별감사를 통해 부지 열값 매각, 불법 인허가 등을 적발하고 15명에게 징징계 및 경징계 등의 조치를 내렸다.

광주시는 이번 감사에서 의정운영공동경비로 유니폼을 구입하는 등 예산 집행 부적정 사례와 공무 국외여행허가 업무처리 소홀 등도 적발했다. 또 원예특작분야 시설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토지분 재산세와 승강기 설치에 따른 취득세 부과 누락 등도 감사에서 지적됐다. 아파트 쓰레기 수거시설 개보수 사업을 2000만원 이하로 분리 발주하고,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했다가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에 호남권 정보보호지원센터 들어선다

미래정보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 구축 공모사업’에서 호남권 거점센터에 광주시가 최종 선정됐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5년간 관련 사업비로 국비 13억6000만원을 지원 받아 사이버 해킹에 취약한 지역 중소기업

의 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해 현장 맞춤형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광주KDB생명건물 25층에 센터운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청 무안이전 10년 ... 목포 원도심 공동화 심각

오늘 세한대서 지역경제 포럼

전남도청이 광주에서 목포로 이접한 무안군으로 옮겨온지 10년이 지났다. 이전 효과가 클 것이라는 지역 주민의 기대 감은 장밋빛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는 원도심 공동화 등 심각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은행 목포본부가 오는 23일 오후 영암 세한대 평생교육원에서 ‘도청 이전 10년 지역경제의 변화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전남 서남권 지역경제 포럼을 연다. 교수 등 전문가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어진다.

이 포럼에서 한국은행 박지섭 과장은 ‘전남도청 이전 10년, 지역경제 변화와 향후 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다. 포

럼에 앞서 이 과장은 22일 배포한 자료에서 “2005년 10월 전남도청 무안 이전 이후 10년간 목포·무안권 경제는 인구 증가, 경제규모 확대 등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약한 외지인구 유입, 성장 모멘텀 저하, 목포시 원도심 공동화 및 빠른 주택자금 대출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청 이전 초창기에는 인구가 늘어나고 공공행정 분야 확대에 따른 지역경제 순기능이 활성화됐지만 공공기관 이주 완료,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이후 인구 및 고용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경제 활력이 저하됐다”고 주장했다.

목포 원도심 인구 감소와 상권 이동 등으로 원도심 공동화가 심화되면서 목포

내 권역간 발전 격차가 확대됐고 도청이 소재한 남악 신도시의 신규아파트 분양 호조로 예금은행의 주택자금 대출이 10년사이 약 2.7배 증가하기도 했다고 이 과장은 평가했다.

그는 “도청 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원도심 활성화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 교육시설 확충 등 남악신도시 생활여건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목포대 고두갑 교수도 ‘목포 지역의 경제적 위상 및 발전방향’이란 주제 발표에서 최근 인구 고령화, 낮은 재정 자립도, 조선업 경기 불황 등으로 목포 지역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공무원 시험

예정대로 27일 실시

전남도는 22일 “수험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책을 마련해 오는 27일로 예정된 2015년 제2회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자가격리자나 능동감시 대상자의 경우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없으나 오는 26일 오후 8시까지 전남도 총무과로 신청하면 시험 당일 자택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9개 시험장 전체 출입구에 의료반 부스를 설치하고 비접촉성 체온계로 발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응시자에게 손소독제와 마스크 등도 지급한다. 또 수험생 가운데 발열 환자가 나올 것을 대비해 별도 시험장을 마련했으며, 시험 전후 전 시험장에 대해서 방역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밝은광주안과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안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수술 방법**

-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안치료
- 인공 수정체 삽입으로 백내장과 함께 노안치료
- 각막에 초정밀 미세 인레이를 삽입하여 노안치료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문의처: 노안리식/Karma nlay를 이용한 시술/다초점 인공 수정체/레스토렌즈/레이즈를 니어비전 인레이

※부작용:수술 후 아간 및 빛반, 노안리식 수술시 건조증등이 생길수 있습니다.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의료광고심의의뢰 제150204-중-68156호

새생명탄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